

대한양계협회 소식



전국양계인대회 1,500명 운집, 성황리에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6~7일 양일에 걸쳐 충남 당진 소재 대호농어민교육복지센터에서 '2008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했다.

양계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시·FTA 대비 양계산업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전국의 1천5백여명의 전국 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제화시대 양계정책 방향 △FTA 대응전략 △세계곡물현황과 국내사료수급동향에 대한 강연과 함께 종합 토론 시간에는 △FTA 및 의무자조금 추진에 대해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의 발표와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좌장의 주제로 농식품부 축산경영팀 임주현 주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박사, 농협 축산지원부 이제영 팀장, 이흥재 육계분과

위원장, 안영기 동양연채란지부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본문 90페이지 참고).

종계부화인대회 및 종계DB구축사업 심포지움 개최



본회, 농협기금수급안정위원회, 한국계육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주관한 종계DB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2008 전국종계부화인대회)이 전국 종계부화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2일(수)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천안웨딩코리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성갑 위원장은 “국제곡물가격과 유류대 상승으로 종계부화인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병아리 및 종란 납품가격은 그대로이고 병아리생산원가는 상승하는 이때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종계부화의 대동단결이 중요하다”며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화시대 양계정책 방향”을 주제로 노수현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장이, “국내종계질병의 발생상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용상 농림수산물부 동물방역팀 사무관이, “농업 3.0시대 창조적 전환의 전략”을 주제로 김동신 솔로몬기업전략연구소장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노수현 팀장은 발표를 통해 종계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협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준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FTA 등으로 농가수입이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는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상 사무관은 SI예방은 물론 삼계(일명 백세미)에 대한 방역정책(안)을 소개하고 가금티푸스 근절대책을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종계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벌어진 “종계DB사업 활성화 및 종계업계의 생존전략을 위한 토론회”는 최성갑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주재로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장, 이제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양계팀장, 안태엽 대한양계협회 논산종계지부장, 인경섭 한국원종 대표, 유한진 조인 이사가 의견을 제시했고 참여 농가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종계 DB 자료가 농가들에게 더욱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종계 표준계약서 정립, 수평계열화 사업전환 및 계열화사업의 재정립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임원 및 도지회·시군지부장 연석회의 양계업계 발전 방안 논의



양계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9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양계협회 임원 및 도지회·시군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협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양계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하림 계열농가 불공정 계약관련 좌담회 개최



지난 16일 광주전남도지회 사무실에서 하림 계열농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남 소재의 20여 농가가 참석해 계열회사와 농가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농가들은 계약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으며, 우선적으로 불공정 거래, 계약

서상의 불평등, 사육비 저평가 등을 꼽았다. 또한 계열 농가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상대평가의 경우, 농가에서 아무리 잘 키워도 계열농가를 통틀어 상·하위 10%로 나누어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불확실하며, 상위권에 들기 위해 따로 사료를 사서 급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연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출하 시 수당 10원의 연금을 적립하는데, 실제 연금을 돌려받을 땐 30%를 제하고 70%만 돌려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측은 불량 병아리를 주거나, 아예 병아리를 안주는 등 해당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분과위원회 정책수립과 산업발전 주도해 나설 것



지난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가 개최됐다. 육계의무자조금의 걸림돌인 당연직 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선정을 위해 농식품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 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한편 하림의 양돈업 진출로 인하여 국정감사에서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

는 만큼 육계분과위원회에서도 전면적인 대 계열사 정책수립과 산업발전을 주도코자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 전문지 기자들과 동행 취재해 대책수립을 위한 단계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 지회 · 지부 소식 》

전북도지회 2008 AI 방역 교육 실시



전북도 내 14개 시·군 조류사육관계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주관하고 가축방역 지원본부와 양계협회가 주최하는 AI 방역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도방역본부 박창윤 사무국장의 금년도 도내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활동과 10월 이후 계속해서 방역예찰활동 계획을 밀도 있게 전달하였고, 도지회 이희완 상무는 농장 차단방역과 양계농가들의 참여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도가축방역 담당 조선기 팀장의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대책과 농가들의 질의응답으로 교육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교육을 하며, 다시는 전북도 내에서 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자고 굳게 다짐하는 알찬 교육 현상이었다.